

## 이경실, 다시 살찐 김신영에 "잃어버린 동생 찾은 느낌"

등록 2026.05.20 00:00:00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코미디언 이경실이 14년 간 다이어트를 끝내고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코미디언 김신영을 보고 "이제 신영이 같다"고 했다.

김신영은 19일 유튜브 예능프로그램 '신여성'에 나와 다이어트에 관해 얘기했다.

이경실은 김신영이 등장하자마자 끌어안으며 "이제 신경이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영아, 난 네가 다시 살이 오르는 게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느낌"이라고 말했다.

김신영은 "요즘 산책도 못한다. 산책하면 사람들이 '살빼려고? 걷지마'라고 한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경실은 "사람들이 옛날 신영이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며 "하지만 그때 살을 뺐다고 했을 때 말리지 못한 건 건강 때문에 그랬

던 거라서 그랬다"고 했다.

김신영은 "맞다. 그때 다낭성난소증후군,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있었다"며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경실은 "건강하게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대했다"고 했다.

김신영은 14년 전부터 혹독한 다이어트를 해 총 44kg을 감량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mailto:jb@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